

‘야간상고 신화’ 박대연 교수 ‘연구 몰두’ KAIST 떠난다



‘야간상고 신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대연(51·전기전자공학)교수가 강단을 떠났다. KAIST는 지난달 말 박 교수가 제출한 사표를 최종 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현재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데 연구와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연구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인 ㈜티맥스소프트 창업자이자 CTO(최고기술책임자)다. 올해로 창업 10돌을 맞은 티맥스소프트는 지난해 매출액만 650억원, 올해 목표는 1천300억원에 달한다. 3남 2녀의 장남인 그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1975년 2월 광주상고 야간과정을 졸업한 뒤 은행에 입사했다. 그리고 은행 전산실에서 처음 소프트웨어 분야와 인연을 맺었다. 동생들 뒷바라지를 마친 그는 ‘컴퓨터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1988년 34살의 다소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학부과정부터 시작해 석·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해 1997년 단 5명의 직원으로 티맥스소프트를 세웠다. 그리고 1998년 2월에는 KAIST 교수가 됐다. 그는 교수직재중에도 우수한 연구성과를 냈다.

동생들 뒷바라지를 마친 그는 ‘컴퓨터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1988년 34살의 다소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학부과정부터 시작해 석·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해 1997년 단 5명의 직원으로 티맥스소프트를 세웠다. 그리고 1998년 2월에는 KAIST 교수가 됐다. 그는 교수직재중에도 우수한 연구성과를 냈다.

동생들 뒷바라지를 마친 그는 ‘컴퓨터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1988년 34살의 다소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학부과정부터 시작해 석·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해 1997년 단 5명의 직원으로 티맥스소프트를 세웠다. 그리고 1998년 2월에는 KAIST 교수가 됐다. 그는 교수직재중에도 우수한 연구성과를 냈다.

前세계 복싱 챔피언 홍창수 스크린 데뷔



현역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힌 조총련계 재일교포 복싱 세계 챔피언 홍창수(일본명 도쿠야마 마사모리·31·사진 오른쪽)가 영화에 데뷔한다. 28일자 스포츠조선은 홍창수가 5월19일 개봉되는 ‘박치기! LOVE&PEACE’에서 무대가 될 모교 도쿄조선고급학교의 ‘남버투’ 역할을 맡았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영화관에서 ‘박치기!’를 보고 감명을 받은 홍창수가 후속편 제작 소식을 듣고 친구 소개로 이즈쓰 가즈유키 감독에게 직접 출연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는 1974년이 배영이어서 감독과 상의한 끝에 금발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려 검게 만든 뒤 출연했다.

신문에 따르면 영화관에서 ‘박치기!’를 보고 감명을 받은 홍창수가 후속편 제작 소식을 듣고 친구 소개로 이즈쓰 가즈유키 감독에게 직접 출연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는 1974년이 배영이어서 감독과 상의한 끝에 금발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려 검게 만든 뒤 출연했다.



브래드 피트·줄리 커플 4월 결혼

세기의 커플 브래드 피트(43)와 안젤리나 졸리(31)가 드디어 결혼식을 올린다. 영국 한 연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피트와 졸리는 부활절인 오는 4월 8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캐리비안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이들은 도미니카 공화국이 완벽한 결혼식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 지난 주말 이곳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피트는 또 엄청난 규모의 땅과 집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미스터 앤 미스즈 스미스’의 주인공으로 함께 출연한 뒤 연인이 된 피트와 졸리 커플은 동거에 들어가 지난 해 딸을 낳았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왔다.



할리우드 ‘축구황제 펠레’ 영화 만든다

축구황제 펠레의 전기 영화가 만들어진다. 할리우드리피터는 27일(현지시간) 펠레가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매니지먼트사인 윌리엄 모리스 에이전시와 자신에 관한 영화를 만드는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으며, 윌리엄 모리스 에이전시가 브라질을 세 차례나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던 펠레를 위해 세계적인 마케팅 및 사업 기회를 만드는 일에 협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펠레의 삶 자체가 영화로 만들기에 충분한 드라마를 지니고 있다. 펠레는 나이저리아 내전 당시 48시간 휴전이 이뤄지도록 한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저리아 사람들이 그의 축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 그는 또 브라질 정부에 의해 국보로 지정됐다.

전남대 총동창회 회장 취임한 무등·우리로광통신 김 국 옹 회장

“대학 발전기금 모금 참여 적극 유도”



최근 전남대 총동창회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국웅(無等·우리로광통신) 회장은 “전남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학발전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총동창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남대의 대학발전기금은 지난해 말 현재 485억원으로 55년의 역사를 지닌 국립대학교로서는 적은 편이다”면서 “기금을 낼 동문을 많이 발굴하는 한편 다양한 동기를 부여해 많은 동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할 당시 정부에서 여수캠퍼스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만큼은 모든 동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현재 등록금 반대 인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학은 좋은 교수를 유치하고 교육여건을 갖춰야 좋은 학생을 길러낼 수 있다”며 “등록금은 필요한 만큼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총동창회 차원에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누구의 잘못을 떠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광주에 대해 갖고 있는 과거이미지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졸업 후 취업시장에요소가 될 것인 만큼 자신과 후배를 위해서라도 노력을 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전남대 동문은 광주캠퍼스 18만명, 여수캠퍼스 3만명 등 21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동문들간 유대를 강화해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국립대학 동문회답게 환경보호나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사진=최현배기자 choi@

직위공모 첫 청장 문병민 광주지방보훈청장 취임

“공익을 위한 삶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일 취임한 문병민(52) 광주지방보훈청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항상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보다 질 높은 보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청장은 또 “보훈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화 통로 등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문 청장은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있도록 조력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조언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문 청장은 올해 국가보훈처에 처음 도입된 직위공모 절차를 거쳐 취임한 첫 청장이다. 장흥 출신으로 광주일고, 방송통신대, 국방대학교 등을 졸업했고, 병무청 정책홍보담당관, 성과관리팀장, 운영지원팀장 등을 역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산악인 박영석, 에베레스트 초등 30돌 기념 원정 등반



산악인 박영석(44·골드윈코리아) 씨가 한국의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천848m) 초등 3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루트 개척에 나선다. 박영석씨는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네पाल의 수도 카트만두로 출국해 5월 10~15일 남서벽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도한 뒤 5월 말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 9일 베링해협 횡단에 아쉽게 실패한 박씨가 오늘 에베레스트 남

서벽은 협준하기로 소문난 난코스이다. 해발 6천400m에 설치할 전진베이스캠프(ABC)에서 정상까지 눈이 쌓이지 않을 정도의 가파른 암벽이 2천m나 이어진다. 원정대에 따르면 1975년 영국이 남서벽으로 에베레스트 봉우리를 처음 오른 뒤 지금까지 남서벽을 통하

등반 루트는 2개에 불과하다. 김영도(83)씨 등 ‘77 한국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참여한 선배 산악인 10여명도 해발 5천700m에 있는 베이스캠프까지 동행할 예정이다. 박씨는 “남서벽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에베레스트에 처음 오를 때부터 품어온 꿈이다”고 의욕을 보였다.

등반 루트는 2개에 불과하다. 김영도(83)씨 등 ‘77 한국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참여한 선배 산악인 10여명도 해발 5천700m에 있는 베이스캠프까지 동행할 예정이다. 박씨는 “남서벽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에베레스트에 처음 오를 때부터 품어온 꿈이다”고 의욕을 보였다.

등정

김재호 광주·전남 마약퇴치운동본부장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장 선출

김재호 광주·전남 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최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에서 열린 제 14차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영·호남 대학생 수학교류 환영회



민족통일 대구시협의회(회장 이순금)는 27일 오후 7시 대구 덕영빌딩에서 ‘영·호남 대학생 수학교류 환영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대에서 수학 중인 전남·북지역 대학생 등 250명이 참석했다. <매일신문 제공>

포스코, ‘포스코 청암상’ 선정·시상



포스코 청암재단이 27일 ‘제 1회 포스코 청암상’ 수상자를 선정, 시상했다. 왼쪽부터 과학상수상자 임지수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교육상 수상자 논산대건고등학교 강석준 교장,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봉사상 수상자 와르다 하피즈 인도네시아 도시빈민협의회 사무총장, 이구택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

에베레스트·로체 원정대 출국



‘희망을 위한 2007 한국도로공사 에베레스트·로체 원정대’ 대원들이 28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에서 출정식을 갖고 출국했다. 박상수 원정대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인 김홍빈 부대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 대원들이 성공적인 등반을 다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시연회



전라남도교육청은 28일 분청 사회의실에서 김장현 교육감을 비롯, 사이버가정학습 운영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사이버가정학습’ 시연회를 가졌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류상동(전 공설운동장 근무)씨 장남 병삼(보이터코리아)군 이정금씨 3녀 서민주(영수캠프 강사)양=4월 1일(일) 낮 12시20분 메리엇웨딩홀 1층 사이어홀. ▲정한일씨 아들 광래(삼성 광주전자)군 문정수(무진원에 대표)씨 딸 주희양=4월 1일(일) 낮 12시30분 프린스호텔 2층 웨딩홀. ▲서기남(전남대 교육위원)씨 3남 승중군 김관석씨 장녀 미애양=4월 1일(일) 오후 1시 상록회관 3층 무궁화홀. ▲김용금씨 차남 한인호군 김석수(전 호남일보 편집국장)씨 장녀 지현양=4월 1일(일) 오후 1시 갤러리아웨딩홀 2층 사이어홀.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접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에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청 민원실 2층. 동창·동문회 ▲목포상고 광주동문회(회장 박병두) 임원상견례=29일(목) 오후 7시 동문회 사무실. 010-7750-7887 ▲창평초교 총동문회(회장 박승석) 101주년 기념행사=4월 1일(일)

- 010-9600-1084 ▲전주리씨 대동음악원 광주·전남 지원 장흥군분원(분원장 이오만) 정기총회=30일(금) 오전 10시30분 새마을금고 3층. 225-5631 ▲전주리씨 대동음악원 광주·전남 지원 보성군분원(분원장 이인용) 정기총회=30일(금) 오전 10시30분 득량만 휴게소. 225-5631 ▲하동정씨 소윤공파(회장 정찬보) 제 16차 정기총회=30일(금) 오전 11시 화랑공회관. 224-1800 ▲진양(진주)하씨 광주 회수회(회장 하준택) 월례회=31일(토) 오전 11시30분 종친회 사무실. 011-607-3369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한영) 모임=4월 6일(금) 오전 6시 상록회관 출발. 부산 화지시조선산 한식향사참례. ▲재광 관산을 향우회(회장 위옥환) 춘계 정례회=4월 2일(일) 오후 6시 금강산. 224-0808 ▲재광 나주향우회 정기이사회=29일(목) 오후 6시30분 화랑공회관. 223-7340 ▲재광 영암신소신복 향우회=30일(금) 오후 7시30분 이화석빌라.

010-9600-1084

종친회

- ▲부항·시할·흥각요법 회원 모임=초급 1·2·3급 과정. 월~토 오후 2시부터. 236-0067 ▲광주YMCA 제 14기 시민자치학교 참가자 모임=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오전 10시~낮 12시. 강의, 참가자 토론, 체험활동 등으로 진행. 교육비 2만원. 선착순 30명. 문의 234-0077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소초 창업 IT과정 수강생 모임=자연계열·공대·농대·생활과학대 등 이공계 전문대 이상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인 미취업·비정규직 여성. 선착순 20명. 4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1회 강의. 문의 602-7402

- ▲부흥·시할·흥각요법 회원 모임=초급 1·2·3급 과정. 월~토 오후 2시부터. 236-0067 ▲광주YMCA 제 14기 시민자치학교 참가자 모임=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오전 10시~낮 12시. 강의, 참가자 토론, 체험활동 등으로 진행. 교육비 2만원. 선착순 30명. 문의 234-0077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소초 창업 IT과정 수강생 모임=자연계열·공대·농대·생활과학대 등 이공계 전문대 이상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인 미취업·비정규직 여성. 선착순 20명. 4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1회 강의. 문의 602-7402

- 은기(자영업)·남기(캐피탈)·황기(남해종합건설 부장)·엽기(여수경찰서)·양자씨 부친상 용진(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홍보실 사원)씨 조부상=발인 29일(목) 27일 광양시 중동 중마 장례식장. 061-795-0444 ▲나막동씨 별세 춘석(대광운수)·강석(영광원자력발전소)·승석(자영업)씨 부친상=발인 29일(목) 금호장례식장 201호. 227-4381 ▲김중덕씨 별세 박건호(광주시유한초교 교사)·건호(담양경찰서 경무계장)·건주(전남도청 보건환경과)·학(서울시청)씨 모친상 이근의(가이자동차 과정)·배대식(전주 전효교회 목사)·윤집중(무안군청 행정계장)씨 빙모상=발인 29일(목) 무등장례식장 101호. 515-4488

광주에서 30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집님필요특별분양 11월 (062) 521-1100